

김홍석은 이재용 감독의 영화인 ‘스캐들-조선상열지사’라는 영화에서 영문 자막만을 발췌하여 그것을 벽면에 나열하였다. 이 영화의 전체의 대사가 기입된 벽면은 하나의 텍스트 스크린이며 이것은 영상과 소리가 제외된 영화가 아니라 영어 자막이라는 텍스트가 존재하는 이미지이다.

Gimhongsok transcribed English subtitles of one Korean movie ‘Untold Scandal’ and presented on the wall. Filled with the whole dialogues from the movie, the wall became a text screen. It is not a movie without images and sound, but rather an image created with the English subtitles.